

안현수, 은퇴하고 한국으로 유턴 “러 코치 제안도 거절”

러시아로 귀화해 선수 생활을 했던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사진)이 러시아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포즈드냐코프는 “스포츠계 인사로서 많은 상과 올림픽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가 은퇴한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유감을 느낀다.”면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선수가 러시아의 쇼트트랙 발전을 위해 행한

6월 ‘서울신문’에 따르면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빙상연맹 회장은 전날 안현수가 가정 사정 때문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러시아를 떠난다고 밝혔다.

크라프초프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빅토르 안이 (선수) 경력을 마무리했다.”면서 “가정 사정상 러시아에 남지도 않을 것이다.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안현수는 부인 우나리 씨와의 사이에 3살 난 딸 제인을 두고 있다.

크라프초프는 타스 통신에도 “그는 러시아에서 코치로 일할 생각도 없다.”면서 “우리는 그와 이 모든 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무엇보다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평창)올림픽 참가 불허가 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안 선수는 처음부터 평창올림픽 출전 뒤에 은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위원장 스타니스라프 포즈드냐코프도 안현수의 은

퇴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모든 일과 눈부시고 기억에 남을 소치 올림픽에서의 활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3관왕에 올랐던 안현수는 한국빙상계 파벌 논란에 휩싸이는데다 심각한 무릎 부상까지 겹치면서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이후에도 좀처럼 재기의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대표로 나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올2월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7번째 금메달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개인 자격으로도 출전하지 못했다.

안현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승환, 리그 불펜 TOP 10 가능할까?

오승환(36·콜로라도)이 정규시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6월 현재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기세라면 엘리트급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 보기 충분하다.

7월 ‘OSEN’에 따르면 토론토와 콜로라도를 거치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승환은 올 시즌 인상적인 숫자를 남기고 있다. 오승환은 이날까지 66경기에 등판해 6승3패3세이브19홀드 평균자책점 2.83을 기록 중이다. 피안타율은 2할1푼, 이닝당출루허용률(WHIP)은 1.02다.

2016년 성적보다는 다소 못하지만, 2017년 성적보다는 훨씬 좋다. 오승환의 지난해 62경기 평균자책점은 4.10, 피안타율은 2할8푼5리, WHIP은 1.40이었다. 오승환의 올해 나이는 만 36세다. 만 36세 시즌에 경력의 반등을 만들어낸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리그 정상급 성적까지 내고 있으니 저력과 기초 체력을 실감할 수 있다.

실제 오승환의 대체선수대비 승리 기여도(WAR)를 보면 175만 달러의 보장 연봉이 험값으로 느껴질 만한 수준이다. 통계전문사이트 ‘베

이스볼 레퍼런스’에 따르면 오승환의 올해 WAR은 1.9다. 토론토에서 1.5, 콜로라도에서 0.4를 각각 쌓았다. 상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WAR당 가치는 대략 700~800만 달러로 본다. 오승환은 투자 원금의 몇 배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리그 전체에 내놔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이다. 5월 현재 불펜으로만 나선 선수 중 오승환의 WAR은 메이저리그 전체 13위, 내셔널리그에서는 7위다. 오승환보다 더 좋은 WAR을 기록한 내셔널리그 불펜투수는 아담 오타비노(콜로라도·2.8), 제레미 제프리스(밀워키·2.8), 자레드 휴즈(신시내티·2.7), 조시 헤이더(밀워키·2.2), 션 두리틀(워싱턴·2.2), 스티브 시섹(시카고 컵스·2.1)뿐이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WAR상에서 내셔널리그 10위 내로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이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오승환은 직전 등판인 4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이닝 3실점을 기록한 뒤 WAR이 2.2에서 1.9로 떨어졌다. 이런 투구 내용이 이어지면 그간의 누적 기록을 깎아먹는 것은 순식간이다. 여전히 어려운 구장 환경과 좌타자 상대 성적이 관건이다.

미국 내과·스포츠의학과 보드전문

김진세

내과/통증전문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부상 전문 치료병원
근골격계 통증, 신경통증 전문의

P.R.P.(자가혈청) Stem Cell(줄기세포) 치료
USC 의과대학 레지던트 Training 지정병원

한국인 유일의 미국내과 및 통증의학
미국 스포츠 의학 보드전문



Chin Se Kim M.D.

- ◆ 미국내과보드전문
- ◆ 미국스포츠의학보드전문
- ◆ 미국통증의학보드전문
- ◆ 가주정부 Qualified medical evaluator

전문진료분야

- ▶ 일반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 응급치료
- ▶ 각종 스포츠 관련 부상 치료 전문
- ▶ 각종 통증치료 : 관절염, 통풍, TMJ, 목, 허리디스크, 견비통, 두통
- ▶ 최신 물리치료 : 침 치료, 교통사고, 직장상해, **감압치료**
- ▶ 종합 진단검사 : 초음파, 심전도, ECHO, 폐기능 검사, Treadmill, Holter
- ▶ 가주정부 Disability evaluation 지정병원
- ▶ Sports injuries, 탈골, 골절치료, Cast, Custom brace
- ▶ 수술 후 재활 치료, 중풍 물리치료
- ▶ **UNICARE ENDOSCOPY / SURGERY CENTER**
- ▶ 위장/대장 내시경 예약
- ▶ 외래수술 상담 및 예약

최첨단 C-Arm 통증치료, 초음파 MRI, CT촬영, 각종 내과 질환 종합검진, 할인 Program 제공

오바마케어 취급
각종 HMO·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 보험/종합 혈액 검사

문의전화 **714-520-0809**

1736 Medical Center Drive #B Anaheim, CA 92801

